



#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확대를 위한 「K-CCS 국제 컨퍼런스 2025」 열려 -
- 아태지역 주요국 CCS 정책 동향 공유, 프로젝트 협력방안 모색 -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경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 사업을 호주,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내로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이 국내에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아태지역의 CCS 협력 확대를 위해 「K-CCS 국제 컨퍼런스 2025」가 6.12(목)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태지역의 주요 CCS 추진국이 모두 모이는 국내 첫 행사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운영하려는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저장하려는 국가, △노르웨이와 같은 CCS 선도국가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동해가스전 CCS사업 예타 추진현황, △국경통과 CCS 등 앞으로의 CCS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가한 6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각 국가별 CCS 정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동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17개 CCS 추진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CCS 프로젝트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참여 기업들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CCS 추진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CCS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 CCS는 탄소 감축이 어려운 제조업 부문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이자 미래 에너지 신산업”임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중심의 국경통과 CCS 사업이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50)
	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배승희 (044-203-5153)

### 1. 행사 개요

- **(배경)**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CCS가 부각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 강화,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일시/장소)** '25.6.12(목) 09:30 / 페어몬트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여의도)
- **(행사주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CCS의 지평을 확장하다
- **(주최/후원)** (사)한국CCUS추진단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참석자)** <sup>수입국</sup>호주·말련·인니·<sup>수출국</sup>일본·싱가포르·<sup>선도국</sup>노르웨이 등 정부 관계자, 국내외 CCS 유관 기관 및 기업 등 약 200여명

### 2. 세부 프로그램(안)

09:30~09:40	10'	귀빈 소개	
09:40~10:00	20'	모두 발언 ▪ 한국CCUS추진단(이사장)	
		모두 발언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2차관)	
10:00~10:05	5'	기념촬영	
10:05~10:20	15'	기조연설 (한국의 CCS 전략 및 산업 현황, 산업부)	
10:20~11:50	90'	정책 세션 (CCS 주요국 정부 대표: 호주, 말련, 인니,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13:05~15:10	125'	비즈니스 세션 I (국내외 CCS 추진기업)	
		<국외 기업> (발표, 총 75분) ▪ Chevron ▪ ExxonMobil ▪ Santos ▪ Shell ▪ PETRONAS	<국내 기업> (발표 25분, 토론 25분) ▪ KNOC ▪ GS Caltex ▪ POSCO International ▪ Samsung E&A ▪ SK Innovation E&S
15:25~16:55	90'	비즈니스 세션 II (국내외 CCS 유관기업)	
		<국외 기업> (발표, 총 45분) ▪ Baker Hughes ▪ DNV ▪ Wood Mackenzie	<국내 기업> (발표 20분, 토론 25분) ▪ GS E&C ▪ Hyundai E&C ▪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 SK Shipping
16:55~17:00	5'	폐회	